Mobilty at a glanc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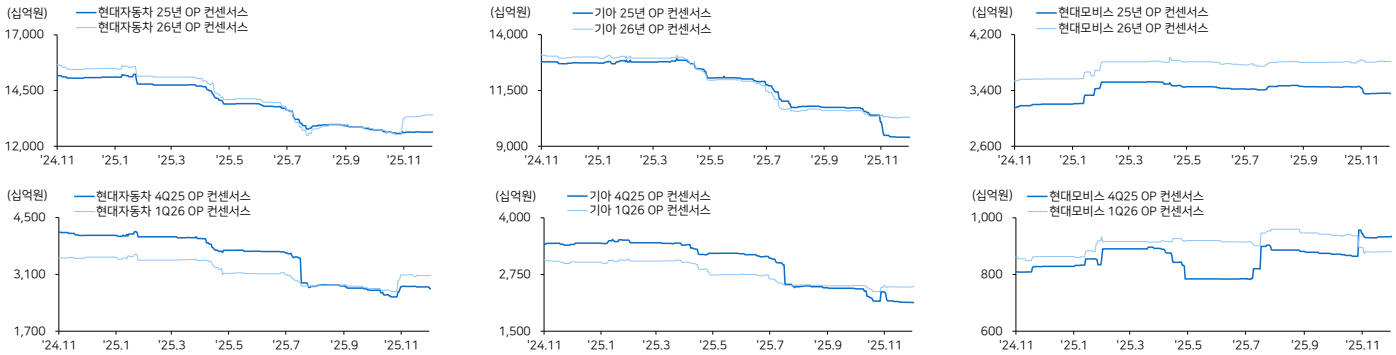
2025.12.18 (목)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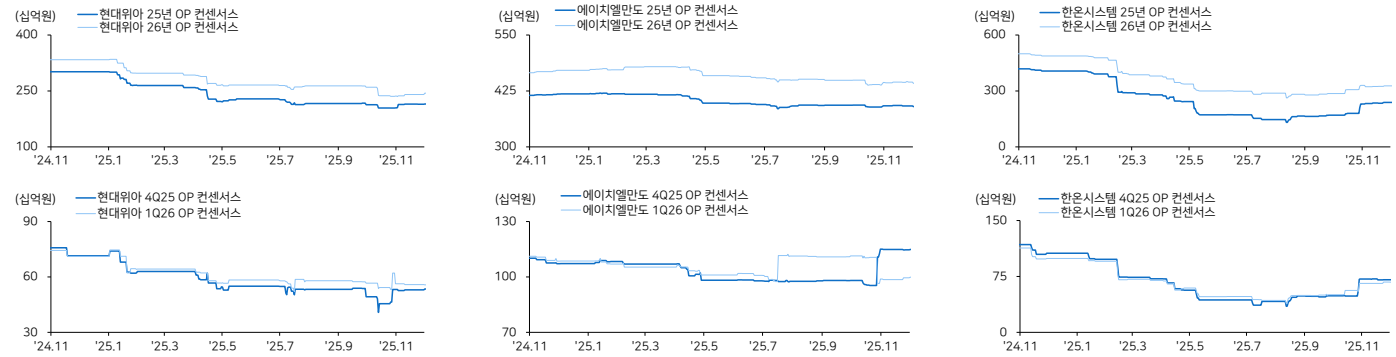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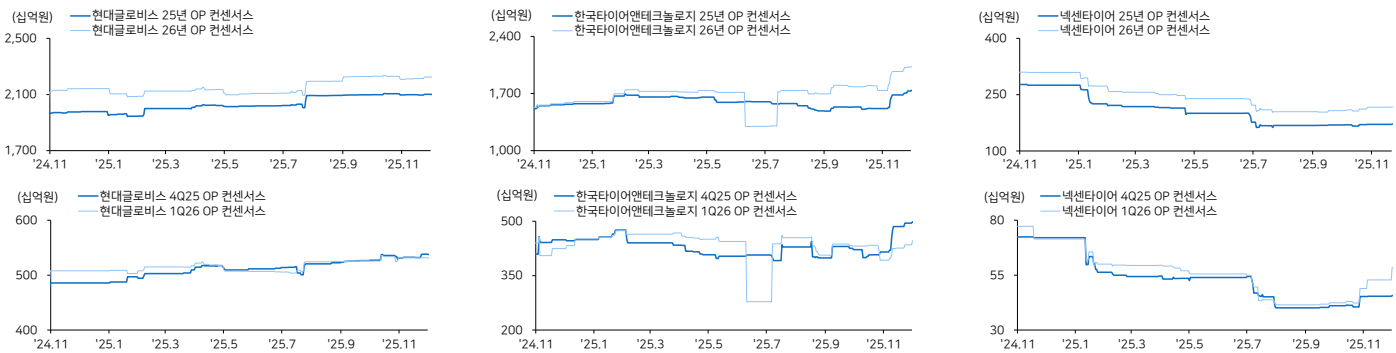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中, 레벨3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정식 승인…상용화 향한 신호탄 (디지털투데이)

중국 정부,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Arcfox) 2종에 대해 L3 자율주행 제품 진입 조건부 승인하며, 실험 단계 넘어 상용화의 길 개척. 승인된 차량은 각각 충칭과 베이징의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각각 최대 시속 50, 80km까지 자율주행 가능

https://han.gl/LwtpP

중국 위라이드, 우버와 두바이서 로보택시 서비스 공식 출시… 우버 앱으로 호출 가능 (글로벌오토뉴스)

중국 WeRide, Uber·두바이 도로교통청과 협력하여 로보택시 서비스 공식 출시. 현재는 안전 운전자 탑승 상태로 운행 중이며, 시범 운영·도로 테스트 거쳐 내년 초 완전 무인 상업 운항 시작 목표. 2030년까지 중동 전역으로 서비스 확장 계획

https://han.gl/Pym0Q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에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내정… 장재훈 부회장과 역할 분담 (조선비즈)

현대차그룹, 그룹 전체의 전략·재무·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내정. 기존 겸직 중이던 장재훈 부회장은 완성차 업무 전념할 예정. 서 신임 실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안살림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망

https://han.gl/YY1wn

현대차 모셔널, 인재 확충…웨이모·테슬라 추격 나선다 (뉴시스)

현대차그룹의 미국 자율주행 계열사 모셔널, 기술 상용화 위해 아마존 'Zoox' 및 '리프트' 출신 전문가 영입 및 AI 인력 대거 충원하며 원천 기술 확보에 집중. 현재 IONIQ 5 기반 로보택시 사업 추진 중이나 기술 격차 존재한다는 냉정한 평가

https://han.gl/cLnTr

현대차 독일법인장 사임… '판매 부진' 책임론에 리더십 교체 (닥구투)

현대차, 독일 시장 내 판매 부진에 메카우 독일 법인장 전격 교체. 이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판매 반등 이끌기 위한 인적 쇄신의 일환. 이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시장 법인장들에 대한 연쇄 인사 단행하여 유럽 시장 공략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됨

https://han.gl/AnZHu

中 샤오펑, 자율주행 기술력 과시…경찰 음주단속도 통과 (디지털투데이)

Xpeng, 경찰의 정지 및 통과 수신호를 스스로 인식해 음주 단속 구간 통과하는 레벨 4 수준 자율주행 시연 영상 공개. 해당 기술은 VLA 2.0을 통해 인간의 개입 없이 수행되었으며, Xpeng은 이 기능을 이르면 2026년 1분기 양산차에 탑재할 계획

https://han.gl/aZZzp

日, 전기차 보조금 내년 1월부터 130만엔으로 증액 (뉴스핌)

일본 정부, 미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EV 보조금 최대 130만 엔, PHEV 85만 엔으로 대폭 인상 확정. 반면 일본 기업이 강점 지닌 FCEV 보조금은 150만 엔으로 대폭 삭감 예정. 이는 미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됨

https://han.gl/4Yyv4

현대차 생산담당 사장 정준철…R&D 이어 제조라인도 교체 (한국경제)

현대차 생산담당, 정준철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 HMG 경영연구원장에 신용석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교수 유력 검토되며 글로벌 산업 연구 강화 예고. 이번 인사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조직 쇄신으로 풀이됨

https://han.gl/GRHkk

현대모비스, 외부인재 확충…'부품·로봇' 투트랙 달린다 (뉴시스)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출신 구매 전문가 영입해 SDV 전환에 따른 복잡한 공급망 관리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몰두. 기존 부품 사업의 수익성 바탕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등 로봇 핵심 부품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 본격화

https://han.gl/L5qcl

현대차, 연구소 재택근무 축소…내년부터 '주 1회'로 조정 (뉴스핌)

현대차, 조직 내 소통과 대면 협업 효율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구소 구성원의 원격근무 가능 횟수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 일각에서는 이를 재택근무 전면 폐지를 위한 사전 단계로 분석. 노조는 노사 간 별도 합의 필요하다는 입장

https://han.gl/XuvdW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